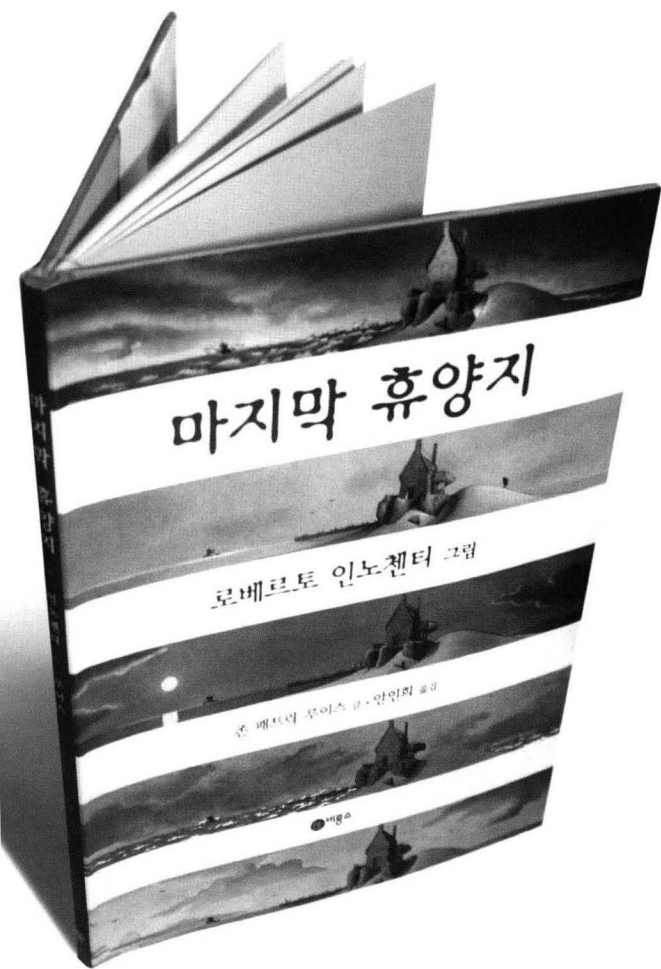


상상력을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 《마지막 휴양지》



이 글을 쓴 원재길은 연세대 사학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나는 눈물을 묻고 있는자들》을 냈고, 전작 장편소설 《결투과 숙곳》을 발표하여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 《모닥불을 밝히려》(적들의 사랑 이야기), 소설집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달밤에 물레 만나다), 시집 《나는 걷는다 물먹은 대지 위를》 등을 썼다.

영국 계관사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우리에게겐 두 개의 눈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얼굴에 나 있어서 현실 세계를 응시하는 육체의 눈이며, 또 하나는 가슴속에 들어 있어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꿈꾸고 설계하고 갈망하는 눈이다. 두 번째 눈, 즉 '마음의 눈'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는 기계나 돌덩어리와 다를 바 없어진다. 초점을 잃고 멍하니 앉아서 귀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휴양지》는 젊고 어린 세대보다는 타성과 권태가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인지 잘 아는 세대에게 어울리는 그림책이다. 주인공은 책 도입부에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다.

“어느 나른한 햇빛 오후 내가 지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내 상상력은 무시당하는 게 분했던지 휴가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직업이 화가인데 앞으로 어찌 해야 좋을지 그저 막막할 뿐이다. 추억에 기대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억은 낡은 모자에 지나지 않으며, 상상력은 새 신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직접 새 신발을 찾아서 발 벗고 길을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몰고 정해진 도로를 나아가던 화가는 옆길로 빠져나간다. 이정표엔 ‘세계의 끝. TV 없는 지역’이라고 적혀 있다. 자동차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고, ‘외로움’을 따라 ‘망각 저편의 낭떠러지’를 지나고 ‘거미 번갯불이 치는 밤’ 한복판을 달린다. 마침내 그가 이른 곳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고풍스러운 바닷가 호텔이다.

이 호텔에서 너덧 밤을 지내는 동안, 그는 한결같이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짐승들과 차례로 만난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실용 마법》이라는 책을 읽으며 호텔 입구에 앉아 있다가 “대답이 물음표와 함께 춤을 추는 곳에서 손님은 회복될 거예요” 하고 엉뚱한 소리로 대꾸하는 소년, 프린트에서 일하면서 온갖 참견을 다하는 앵무새, 목발을 짚고 밤마다 밖에 나가서 땅을 파는 외다리 선원.

역세고 다부지게 생긴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해변의 햇빛 가리개 속에 앉아 오래도록 책을 읽는 병약해 보이는 젊은 아가씨, 어떤 특별한 글을 쓸 생각으로 호텔에 투숙한 키 작은 남자, 지도를 들고 작은 가죽가방을 어깨에 멘 가벼운 차림새로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나타난 흰칠한 외모의 젊은 방랑자, 매서운 눈빛을 번득이고 파이프담배를 태우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동향을 살피는 땅딸막한 형사, 그리고 상상의 비행을

위해서 이중 날개를 단 비행기를 몰고 날아온 비행사와 18세기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신사. 이들 모두는 주저 없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고귀한 것,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들을 찾는 일에 몰두하는 탐험가이자 몽상가들이다. 잠시도 가슴 속에서 상상력이 늘어지게 두 다리 뻗고 잠자거나 한가하게 게으름피우는 순간이 없으며, 언제나 마음의 눈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다. “우린 땅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 집 앞에 멈추었네” 하고 마지막 손님이 노래하듯이, 활달하고 자유분방하며 거침없는 그들의 상상력은 지상에 놓인 집마저 하늘에 등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마지막 휴양지》

존 패트릭 루이스 글 |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림 | 안인희 옮김 | 비룡소 | 48쪽 | 값 10,000원

줄곧 수상하고 미심쩍은 행동을 하던 이들은 이윽고 자신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걸 손에 넣고 하나 둘 호텔을 떠나간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로소 독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전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인지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 중엔 인어공주도 있고 마크 트웨인이 만들어낸 희대의 악동 허클베리 핀도 있다. 또한 조르주 심농 소설의 주인공이며 결코 좌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불굴의 과리시경 형사 쥘 메그레 경감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의 상상 여행은 계속되어 《어린 왕자》의 작가이며 비행기로 사막을 횡단하다가 실종되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별이 된 생텍쥐페리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땅에 발을 딛는 일 없이 나무 위에서 먹고 잠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칼비노 소설의 남자, 허먼 멜빌 소설의 두 주인공이자 필생의 적수이며 경쟁자인 에이 해브 선장과 흰 고래, “진실을 뼈뼉하게 말하지 않을 경우엔 찬란한 빛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시인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무 위의 남자가 기다리는 상대인 돈키호테 일행도 우리는 이 책에서 접할 수 있다.

《마지막 휴양지》는 이처럼 독자들이 여러 등장인물들의 정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정신에 활기를 되찾고 상상력이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책이다. 걸작 추리소설처럼 시종일관 우리를 바짝 긴장시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동시에, 영감과 예지와 직관력이 살아 넘치는 뛰어난 장시를 읽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추억 속의 인물들과 재회하는 감격을 선사한다.

문학과 상상력 예찬서인 이 책의 작가가 시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간결한 문체,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삶의 비밀을 꿰뚫는 능력이 전편에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럼 또한 모든 경계를 허물고 현실 세계를 위협할 만큼 우리의 상상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일러스트레이터 로베르토 인노첸티는 이태리 수공업의 장인정신을 엿보게 하는 사람으로서 《백장미》와 여러 고전 이야기 시리즈에서 치밀하고 정교한 표현력을 뽐낸 바 있다. 과연 이 책에서도 다양한 각도를 사용한 입체적인 장면 구성과 변화무쌍한 자연 묘사로 줄곧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대단한 인간들이다. **추천**